

광양시 올해 공모·시상 '상복 터졌네'

도시재생 뉴딜사업·정부합동평가 등 103건 730억원 확보 성과 지난해보다 263억원 늘어...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 발굴 주요

광양시는 올 한 해 동안 중앙부처, 전라남도 주관 각종 공모·시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103건 730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공모·시상사업 확보액 467억원 대비 64%증가한 263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시는 이번 확보액이 그동안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발굴 보고회에서 발굴된 사업들을 집중 분석해 중앙부처와 전남도 등 관계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얻어낸 성과로 풀이하고 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385억원(광영동 250억원,

태인동 135억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선도사업' 1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80억원(봉강면·다압면 각각 40억 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3억 5000만원 등 총 67건 721억원이다.
시상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2018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2억 6000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1억 8000만원,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기관 1억원, 고용노동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9000만원, 국토교통부 지속가

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기관 3000만원 등 총 36건 9억원을 확보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역대 최고의 730억원 확보라는 큰 성과는 올 초부터 전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매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거둘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차별되고 내실 있는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한발 앞선 응모를 통한 의존재원확보로 시민만족,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개관 1주년을 맞은 광양희망도서관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희망도서관 29·30일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개관 1주년을 맞은 광양희망도서관이 29일과 30일 이틀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희망도서관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된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어린이들이 읽고 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돼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개관 1주년을 맞는 이번 행사에는 '아이가 꿈꾼다. 희망이 자란다'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북 콘서트, 체험행사 등이 마련됐다.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1주년 기념식에는 축하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도서관학급 전달, 돌잔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기념식 후에는 생태동화작가 권오준

과 함께하는 '미술과 음악이 있는 북 콘서트'가 개최되며, 도서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3층 로비에 전시된다.
개관 1주년이 되는 30일에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에 맞춘 다양한 어린이 체험행사가 준비됐다.
사전접수 프로그램으로 6~7세 아동들이 참여하는 '린저쿠키 만들기'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캘리파트무드', '캘리메시지 소이캔들 만들기'가 각각 진행된다.
또 2층 자료실에서는 당일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를 위해 청소년 재능기부 키워봉사단에서 풍선아트와 페이스페인팅을 운영한다.
북 콘서트, 사전으로 진행되는 체험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wangyan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희망도서관(061-797-4296)으로 연락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100원 시내버스' 내년 중·고생까지 확대

광양시는 기존의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 대상 100원 시내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초·중·고등학생 교통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광역 무료환승 시행일인 지난 6월에 맞춰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를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시행 후 교통카드를 집계하자 월 평균 500여 명씩 증가하는 등 이용객들의 반응이 좋았기에 따라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했다.
현재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은 1000원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100원을 할인받아 900원을 지불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으로 100원 시내버스가 확대됨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자에 한해 900원이 할인된 100원만 결제하면 탑승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광양에서 하동으로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구간요금만 적용되어 행선지를 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전 노선이 구간상관 없이 100원이 적용돼 행선지를 알려 줄 필요 없이 교통카드만 찍으면 된다.
시는 이번 100원 시내버스 중·고등학생 확대가 교통카드 이용자 증가로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경영 개선에도 도움을 주 적자노선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현금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아 기본요금인 초·중·고등학생 650원, 중·고등학생 1000원을 부담하게 되고, 타인의 카드도 이용할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할인 등록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새해에도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관광산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사라실예술촌에서 열린 '성(城)들 사이에서 피어난 현호색' 주제 강연 모습. (광양시 제공)

새해에도 문화유산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광양시, 4~12월 전수교육관 활성화·생생문화재 사업 등 진행

광양시는 2019년 새해에도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관광산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문화재 활용사업은 기존의 박재된 문화재 보호정책에서 탈피해 지자체가 문화유산에 내재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2년 연속 집중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전수

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공시전수교육관과 장도전수교육관에서 '66년 한길인생 화살장인, 그에게서 배우다'와 '장도만들새에서 노닐기'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는 사라실예술촌에서 '성(城)들 사이에서 피어난 현호색'이란 주제로 강의가 열린다.
특히 지난해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집중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보다 알차고 신선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사라실예술촌의 활성화와 주변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따라 장도(章圖)나들이'를 주제로 장도전수교육관에서 '광양 문화유산 감찰단', '나는야 문화재지킴이!'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본래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리는 시간을 갖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활용 사업이 단순한 문화재 관람에서 국민참여형 교육·여행·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건설품질심사 통해 22억 예산절감

광양시는 올 한해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이 집행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건설품질심사'를 통해 2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건설품질심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원가계산 및 설계지침, 공법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설계가 예산 낭비 없이 잘 되었는지 꼼꼼히 따지는 제도이다.
시는 이달까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공사 394건 567억원, 용역 및 물품구매 261건 262억원 등 총 655건 829건에 대해 건설품질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공사에서는 17억원, 용역 및 물품구매에서는 5억원을 절감하는 등 예산대비 평균 2.66% 절감 효과를 거두

는 성과를 거뒀다.
시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 적합한 공법 적용과 각종 설계지침 및 표준폼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19년 1월 건설품질심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해 각 사업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건설품질심사로 재정낭비와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겠다"며 "이와 더불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주)금호주택

GUMHO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왕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암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